

국내 IT 서비스산업 발전방안과 과제

김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 연구원

kms2050@fki.or.kr

I. IT서비스산업 개요

1. IT서비스산업의 개념

□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IT서비스산업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IT활용을 서비스하는 것)으로서 IT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타 제조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

* IT서비스산업 : 최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당 분야의 업무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산업과 융합화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IT서비스산업협회)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 미래산업팀 연구원
- 「전경련 신성장동력포럼 리포트」, 「IT서비스산업 발전방안과 과제」, 「R&D투자를 통한 기업의 불황극복 사례와 시사점」 등
- IT서비스산업협회 정책기획협의회

- IT서비스산업은 소프트웨어산업 및 융합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식집약적 고임금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핵심전략 산업
- 해외 기관에서는 IT서비스산업을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 하고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음

<표 1> IT서비스산업에 관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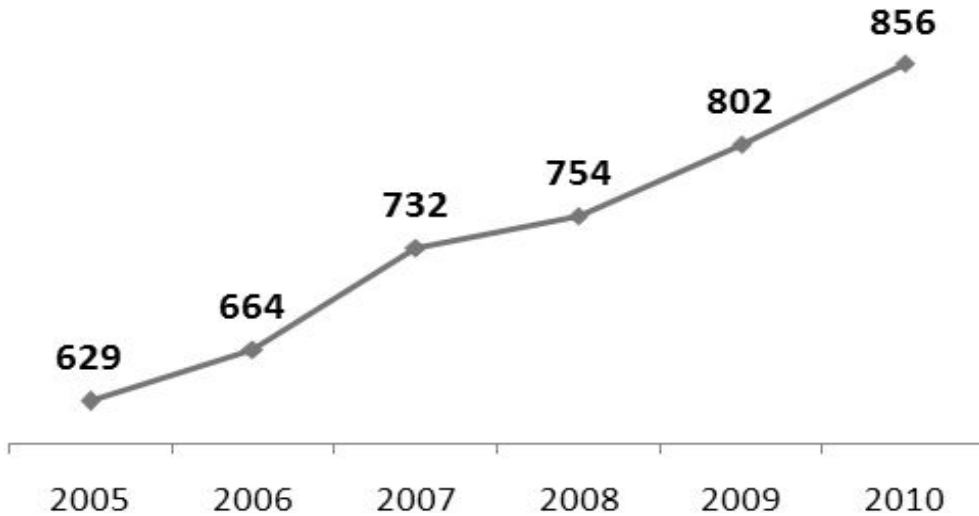
기 관	정 의
Gartner	IT에 의해 기존 사업에 효율화와 개혁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신규사업 창출을 이끄는 서비스로서 기술전략평가의 지원과 고객의 수요파악, 시스템 구현 및 기획, 운영, 인프라 자문, 신규도입 교육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IDC	정보기술 전반에 걸친 지식 서비스산업으로서, 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평가 및 측정, 프로세스의 최상의 기술적 충족요건을 운영하는 산업
OECD	IT분야에서 프로세스를 수행하거나 구축,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산업. 고도의 기술적인 능력을 지니고 고객이 필요한 능력을 기반으로 신뢰있고 능숙하게 조언해 주고 개발보수를 받는 산업

- 세계시장에서 IT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산업의 영향력 및 중요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IT서비스산업을 소프트웨어산업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

2. IT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1) 세계 IT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세계 IT서비스 시장은 2005년 6,300억 달러 규모에서 성장세를 이어가 2010년까지 8,560억 달러, 2012년까지 9,914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비용절감과 글로벌화 등의 혁신 투자를 위해 IT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표 2〉 세계 IT서비스 시장 성장 추이

(단위 : 십억달러)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E)	' 10년(E)
IT서비스	629	664	732	754	802	856
SW	146	156	169	183	197	212
HW	363	366	372	378	383	388
합계	1,137	1,187	1,273	1,314	1,382	1,455

자료 : Gartner

○ 세계 IT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약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기업들은 하드웨어 부문의 성장이 둔화되자, 서비스 부문으로 진출을 시도 중

* 최근 HP(Hewlett Packard)가 대형 IT서비스업체 EDS를 인수(' 08년)

○ 각 국은 향후 IT 분야 투자액 및 고용창출 규모(일본)와 의료 건강관리, 스마트그리드 등 투자 분야(미국)를 제시하는 등 IT 관련정책을 추진

○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시장이 인도, 중국 등 후발주자의 급속한 성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의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 인도의 경우 IT서비스 수출액이 269억 달러(총 수출의 57%)에 달할 정도로 산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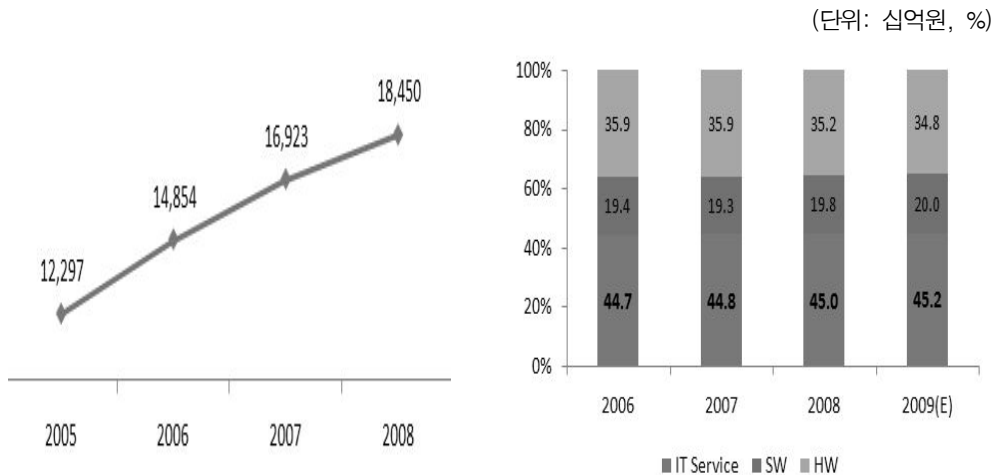
이 증가해왔으며, 세계 IT서비스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속도로 급성장
 - 중국의 경우 2000년 당시 1.2%였던 세계 시장점유율이 '07년 8.7%까지 증가

<표 3> 세계 주요국의 IT서비스 관련 정책 방향

국 가	정책 및 방향
일 본	디지털 신시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긴급 플랜(3개년) 전자정부·의료·교육 프로젝트, 환경문제, 디지털 기반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3년간 3조 엔의 투자와 40~50만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
미 국	미국 경제부흥·재생법 IT 관련 분야로서 의료·건강관리, 전력 그리드(Grid), 브로드밴드(Broadband)에 중점
프랑스	디지털 프랑스 2012 전 국민의 디지털 네트워크 접속, 디지털 콘텐츠 공급 증가, 디지털 관련 서비스 다각화, 디지털 경제 관리 체제의 근대화 등에 초점
영 국	디지털 네트워크 선진화, 다이내믹한 투자환경, 공공 서비스 기반 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행

(2) 국내 IT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IT서비스 시장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IT산업전체에서 IT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자료 : Knowledge Research Group

[그림 1] 국내 IT서비스 시장규모 및 전체 IT산업 내 비중

- 하지만 IT제조업이 국내 제조업 시장에서 21.2%를 차지하는 반면, IT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국내 서비스산업 대비 8.3%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3. IT서비스산업의 성장 효과

- (시장규모) 세계 IT서비스 시장 규모는 7,327억 달러('07년 기준)로 반도체, 휴대전화, LCD 등 국내기업의 주력품목 세계시장 규모를 증가
- 세계 IT서비스 시장은 반도체(2,500억 달러), 휴대전화(1,200억 달러) 시장을 증가 하나, 한국기업의 비중은 1.1%에 불과('07년 기준)
- 한국의 IT제조업은 반도체, 휴대전화, LCD에서 세계적인 제품과 기업을 배출한 반면, IT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미흡

〈표 4〉 세계 IT서비스 시장규모 비교 ('07년 기준)

구분	반도체	휴대전화	LCD	IT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2,496억 달러	1,200억 달러	320억 달러	7,327억 달러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45.1%	23.0%	46.5%	1.1%

자료 : IDC

- (고용효과) IT서비스업의 고용 성장률(20.6%)은 IT제조업 등 타 산업(全 산업 평균 1.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IT서비스 부문의 활성화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완화가 가능
- 실제 고용유발 효과는 우리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제조업보다 IT서비스 산업이 효과적

<표 5> 국내 IT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추이 비교

(단위 : 천명)

구분	93년	95년	00년	05년	연평균 성장률 ('93~'05년)
全 산업	12,245	13,634	13,604	15,148	1.8%
제조업	3,885	3,709	3,333	3,451	-1.0%
서비스업	7,589	8,806	9,496	10,799	3.0%
IT산업	416	481	657	751	5.1%
IT제조업	340	377	429	497	3.2%
IT서비스업	17	36	125	161	20.6%
통신·방송	59	68	103	93	3.9%

자료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 IT서비스산업의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는 제조업 대비 높은 수준

<표 6> 국내 IT서비스산업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

구 분		95년	00년	03년
제조업	취업계수	10.21	4.87	4.19
	고용계수	9.69	4.38	3.77
IT서비스업	취업계수	21.49	11.31	8.74
	고용계수	17.72	10.36	8.07

자료 : 산업연구원

□ (부가가치) SW·IT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율이 타 산업보다 매우 높음

○ '02~'05년 기간 중 소프트웨어(SW)·IT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부가 가치/매출액)은 32.9%로 동기간 제조업 전반 21.7%, 컴퓨터·사무용기기 제조업 11.5%와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편

<표 7> 소프트웨어·IT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율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합계
부가가치	3,742	4,262	4,689	5,323	18,015
매출액	12,203	12,788	13,711	16,003	54,705
부가가치 / 매출액	30.7%	33.3%	34.2%	33.3%	32.9%

〈표 8〉 부가가치율 비교

(단위 : 십억원)

구 분	제조업 전반	컴퓨터·사무용기기 제조업	IT서비스
부가가치율 ('02~'05)	21.7%	11.5%	32.9%

자료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II. 글로벌 IT서비스기업 성장 사례(IBM)

- 1911년 설립한 IBM은 1980년대 중반까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중대형 컴퓨터 등 IT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
- 1965 ~ 1985년 까지 연 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
 - 당시 IBM의 서비스 부문은 현장 판매의 지원부서(System Service Div.)에 불과하였으며, IBM내에서는 판매부서의 하부 단위 정도로 인식
- '80년대 중반 이후 PC시장 수요에 대한 오판, UNIX의 메인프레임 서버 대체 등으로 시장기회 상실, '90년대 초 급격한 성장둔화 위기에 봉착
 - ↳ 1990년대 초반까지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경시
- '93년 루 거스너(Lou Gerstner) CEO 취임 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여 통합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포지셔닝한 후 고부가가치 사업구조 정착을 통해 IT서비스 중심으로 재도약
- 저수익·비핵심 HW 부문을 지속적으로 매각 또는 아웃소싱하고, 토털 솔루션 제공을 위해 서비스 및 SW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보
 - IBM은 '97년 통신회사들의 과도한 투자경쟁으로 가치가 하락한 네트워크망을 AT&T에 매각(50억 달러)하였고, '02년 미국유럽의 PC 제조공장도 산미나-SCI와 솔렉트론에 매각(37억 달러)
 - IBM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강화와 분산시스템관리 시장 진출을 위해 각각 Lotus와 Tivoli를 인수하였고, 응용 SW 분야는 자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SAP 등 선진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

- 개방화·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시스템 통합 및 운영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IT서비스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분산되어 있던 네트워크서비스, 아웃소싱, 유지보수, 컨설팅 부서를 통합하여 1996년에 서비스 전담조직 'IBM 글로벌 서비스(Global Services)'를 신설
 - IBM Global Services가 1990년대 후반 IT서비스 시장의 팽창과 함께 성장한 결과, 2001년 이후 IT서비스 부문이 최대 수익 창출 부문으로 잡으며 IBM은 명실상부한 IT서비스 기업으로 변신
 - ↳ 1993년 서비스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은 전체의 27%에 불과하나, 2001년에는 58%로 비중이 크게 확대

III. 국내 IT서비스산업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IT서비스의 전문 지식산업화

- 현재 한국의 IT서비스업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따라 그때그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
- 비효율적인 관행에 따라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매년 “개발-재개발”의 프로세스를 반복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동일 고객으로부터 수요가 계속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나,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오직 발주자(공공기관 등)만이 소유하여 개발자(기업)는 재사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
 - 이전에 행해지던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제도의 잔재로 인해, 생산성 증가를 위해 투입인력을 줄이면, 가격인하의 압력이 들어와 기술력 활용이 어려운 구조
 - * 헤드카운팅 방식 : 발주기관이 투입인력 수를 기준으로 수주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 IT서비스를 일시적인 소모품이 아닌, 표준화된 지식 상품으로 정립 하여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지식산업화로의 전환이 필요
- 고객 주문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사전에 제품을 개발해 두고, 단일 고객이 아닌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 제공
 - IT서비스 산업화는 현재의 소량주문 생산 방식을 대량맞춤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여 IT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

2.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 국내업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내수중심의 시장 구조개선
- 국내 IT서비스 시장 성장 저하로 인하여, 글로벌 진출 확대 필수
 - 국내 IT서비스 시장규모는 '07년 59.5억 달러에서 '12년 76.6억 달러로 연평균 5.2% 성장이 전망(IDC)되나, 이는 '08년 이후 점차 저하되는 추세이므로 신시장 발굴이 필요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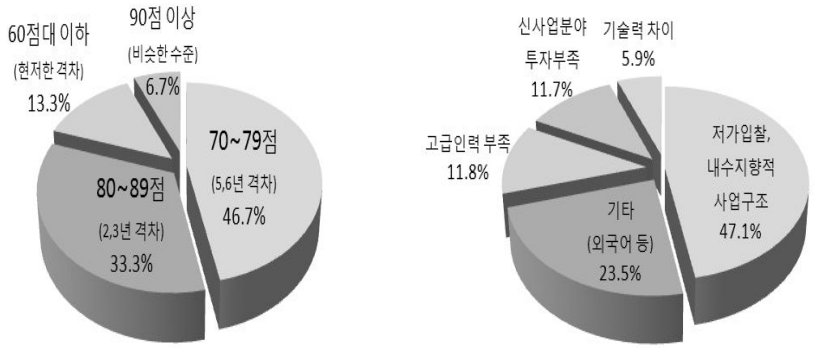
〈표 9〉 국내 IT서비스 시장 성장률

구 분	'05~'06년	'06~'07년	'07~'08년
성장률	20.79%	13.93%	9.02%

- 2007년 세계 IT서비스 시장규모 7,327억 달러(약 732조 7,000억 원) 중 국내 IT서비스 3대 업체(삼성SDS, LG CNS, SK C&C)의 매출 합계는 5조 5,920억 원에 그쳐, 세계 시장 점유율의 0.76%에 불과

※ 본회 설문조사 결과('09.6.26), 한국 IT서비스기업의 역량을 해외 선진 기업의 수준과 비교해 본다면, 70점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60점대 이하라는 응답도 13.3%를 차지 (평균 73.3점)그리고 이와 같이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가위주 입찰, 내수지향적 사업구조(47.1%)를 가장 많이 응답

해외선진기업 대비 국내기업 평가 평가 이유



[그림 2] 해외선진기업과 비교한 국내 IT서비스 경쟁력

※ 국내 IT서비스 37개 주요기업 대상

□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 과거 전자, 자동차 업종의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열어준 것처럼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육성 시에도 대기업과 동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가능
- 실제로, 1개의 대형 프로젝트 내에 소프트웨어 50여종, 하드웨어 10여종을 사용하므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시 국내 중소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가능성
- 교통카드, 전자정부, 우정사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만한 국내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
-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시스템(삼성 SDS, 약 110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정보 시스템(LG CNS, 약 560억원 규모) 구축 성공사례와 같이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적극 진출을 시도

3.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IT 융복합화

□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 개선 등 지원 강화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점차 산업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동시에 신사업이 창출

- 융복합화는 정채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부 규제 개선을 통한 활성화 필요

*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GM, 음악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애플, 노키아 등

- 건설+IT의 세계시장 규모는 2,890억 달러로 전망되고, 또한, 자동차+IT 시장은 400억 달러, Health+IT 시장 236억 달러, BT+NT+IT 시장도 1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 (2012년 기준, ETRI)

<표 10> IT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전망이 밝은 분야

순위	사업명	응답률
1	Green IT	25%
2	u-Health	15.9%
2	SaaS	15.9%
3	RFID/USN	13.6%
3	u-City	13.6%

※ 본회 설문조사 결과, 국내 IT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향후 전망이 밝은 분야는 Green IT, u-Health, SaaS(Service as a Service), RFID/USN, u-City 順으로 응답

○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와 관련하여, 현재는 의료인 사이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는 금지하고 있어 활성화에 장애가 되므로 이에 관한 개선 필요

IV. IT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쟁체제 활성화

(1) 기능점수 방식(Function Point)의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최근까지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사업관리라고 지적된 MM (Man Month)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주로 산출하고 있었으나,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원가 절감 노력을 무산
 - MM 방식은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투입되는 인력 규모를 산출하게 되어 논리적 산출 근거가 미흡
 - 산정된 인원은 실제로 발주자(공공기관 등)가 지정한 사업장에 상주 하여야만 프로젝트에 참가진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비효율성 내재
- 정부에서는 헤드카운팅 방식의 사업관리를 지양하기 위한 대안으로 IT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
 - 지식경제부에서는 IT시스템SW개발 사업대가로 행해지던 헤드카운팅 방식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고, 국제표준인 기능점수방식(ISO/IEC 14143)을 적용하기로 ‘SW사업대가의 기준’ 개정고시(’09.5.20)
 - 기능점수 방식은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적 요구사항별로 점수를 매겨서 프로젝트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제표준이 정의되어 있어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가 가능

[개선 방안]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분야에 이어, 유지보수(SM) 등 ‘운영’ 분야에도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을 확대

- 기존의 헤드카운트 방식으로 계약한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에 예속되어 다양한 경험을 갖출 기회를 상실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IT산업계의 손실
- 반면, 기능점수방식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입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시에는 기존관행의 잔재인 헤드 카운팅 방식과 혼용하지 말고 기술의 난이도, 즉 가치에 기반을 둔 가격 책정(Value Based Pricing)을 실현

(2) 원격 작업을 통한 효율성 향상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IT서비스 제공자는 프로젝트 진행시, 사업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상에 발주자(공공기관 등)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작업이 가능
- 이는 인력 투입량에 따라 사업 규모와 가격이 산정되는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관리방식의 폐해로, 실제로 그 인원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후진적 제도

[개선 방안]

- 작업장소를 발주자(공공기관 등)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제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도 원격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원격 작업을 통하여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발주하여 서비스 제공업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기존 방식의 차이점 (완성도, 비용, 의사소통의 효율성 등)을 실제 비교해보는 방안을 제안

2.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화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계약법상 SW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IT분야 정부사업 발주시, 기존에는 프로젝트 전체를 통합하여 발주하던 방식에서 항목별로 분할하여 SW, SI(시스템 통합) 등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으로 변경
 -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09.3.5)하여 10억 원 이상 규모의 정보화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의무화
- 이전에는 SI업체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던 SW를, 이제는 분할하여 발주자가 각각 구입하게 되므로, 이를 받아서 통합하는 SI측 입장에서는 SW끼리 호환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일어나 책임소재 문제 발생
 - 시스템 통합(SI)업체가 최종 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책임은 주로 시스템 통합업체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
 - 또한, 소프트웨어 상호호환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통합 비용도 발생

[개선 방안]

-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발주자와 SI업체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게 된 것은 시스템 통합(SI)업체를 비롯한 IT서비스 산업계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
 - 발주자와 시스템 통합(SI)업체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업 제안 요청서(RFP) 상에 상호간 책임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문제 발생 이전에 명문화
 -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통합비용을 인정하여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에 따른 부가가치를 반영

3. 표준화, 고급인력 양성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IT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기반 취약성으로 인해 기술표준 설정 등 IT 서비스 산업화와 관련된 투자가 부진
- 표준이 없거나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시장창출에 실패하는 경우 발생
 - 예를 들어,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업자들마다 서로 다른 표준을 적용한 결과 초기 수요 창출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
 - ‘하이패스(Hi-Pass)’처럼 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ETCS 서비스는 표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도입된 지 7~8년이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 신시장이 열리더라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산업화가 지연
 - RFID, USN, SOA, SaaS, Cloud Computing 등 신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전문인력 공급이 뒤쳐져 산업 생태계 균형 상실
 -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과거와 달리 IT분야 기피현상도 발생

[개선 방안]

- 시장 표준화 기반 마련, IT 융·복합분야 전문고급 인력 양성 등 IT 서비스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 경쟁력 강화
- 향후 성장가능성이 많고 다수의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Green IT, u-Health, SaaS, u-City 등의 신시장 형성을 위한 표준화 설정 필요
 - 신사업 분야 표준화 설정을 통하여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수 시장 창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선제적 지위를 점유

<설문조사>

국내 IT서비스산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방법 :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국내 IT서비스 37개 주요기업 대상 (20개 기업 응답)
(기획부서 부장급 대상)

1. 「IT시스템 개발·구축」 분야에 편중(총 시장 규모 중 83.3% 차지) 되어있는 국내 IT서비스산업은 향후 어느 유형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가?

순위	사업 내용	응답률
1	종합형 (컨설팅, 개발, 솔루션 등) : 대표기업 IBM	40%
2	아웃소싱 중심형 (SM, 데이터센터 운용 등)	25%
3	솔루션 중심형 (패키지 솔루션)	20%
4	컨설팅 중심형 (ISP, 컨설팅 등)	10%
5	IT 시스템 개발·구축 중심형 (개발 및 통합)	5%

2. 대부분의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서비스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그 전반적인 역량을 해외 선진 기업과 비교한다면 어느 수준인가?

순위	수 준	응답률
1	70점 ~ 79점 (5,6년의 노력을 통하여 따라잡을수 있다)	46.7%
2	80점 ~ 89점 (2,3년 내에 곧 따라잡을 수 있다)	33.3%
3	60점대 이하 (아직 해외 선진업체와의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뒤떨어져있다)	13.3%
4	90점 이상 (격차가 거의 없는 비슷한 수준이다)	6.7%

* 평균 점수 73.3점

3. 문항 2와 같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순위	사업 내용	응답률
1	저가위주 입찰, 내수지향적 사업구조	47.1%
2	기타 (외국어 능력, 근무 여건 등)	23.5%
3	고급인력의 부족	11.8%
4	SI, SM위주의 전통 비즈니스모델 고수 (신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부족)	11.7%
5	기술력의 차이	5.9%

4.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위해 향후 전망이 밝은 신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복수 응답)

순위	사업명	응답률
1	Green IT	25%
2	u-Health	15.9%
2	SaaS	15.9%
3	RFID/USN	13.6%
3	u-City	13.6%